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2017년 상반기 친절 교직원 시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17년 상반기 고객 만족을 실천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친절교직원 시상식을 가졌다.

친절 우수 교원으로는 외과 광범석 교수가 수상했으며, 81병동 고태은, 이명숙, 62병동 주승혜, 재활의학과 권용민 선생이 각각 친절직원으로 선발됐다.

이번에 선발된 친절직원은 고객의 소리함 및 홈페이지 등에서 친절 사례를 취합하여 선정했으며, 부상으로 표창장과 상금 각 10만 원을 지급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직원들에게 친절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상·하반기 수상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친절 직원 수상자는 EMR에 게시할 예정이다.



신입 간호사를 위한 1주년 기념행사 개최

간호부는 지난 9일 2015년 발령 신입 간호사를 대상으로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입 간호사들의 첫 돌을 축하하고, 그동안 보여준 노고와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고자 특별히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에 자리를 마련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간호사는 “입사한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만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시간을 잘 버티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병동 간호팀 노하우 공유의 장

병동 간호팀에서는 2월 8일 5층 대강당에서 ‘더 best practice 더 best CS Knowhow 공유의 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신감 있는 직장생활’을 주제로 병동에서 간호하면서 힘들었던 경험 및 환자와 보호자의 격려로 인해 보람을 느끼면서 힘을 얻는 경험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함께 공유했다.

또한, 자신감을 느끼기 위해 직장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과 서로 칭찬해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내용의 강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어 2016년 투약, 낙상 등 ‘환자안전 사례 공유’를 주제로 ▲투약 오류 개선활동 ▲환자 사라짐 사례를 통한 위해 행동 예상 환자가 사라졌을 시 병동대응지침 규정개정 ▲자살사고 대응 내부 지침 신설 등 사례별 근본 원인 분석과 개선활동 내용 등에 대해 강의를 했다.

발표회에 참석한 간호사는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아 우리 생활에 감사 바이러스가 퍼지도록 한다면 즐겁고 자신감 넘치는 직장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고객의 소리

믿음과 희망

동국대일산병원에서 2번의 수술과 입원을 했었습니다.

병원의 진료는 대부분 만족스러웠지만, 의료인들의 차가운 태도에 진실성은 느껴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였는데 김윤우 선생님을 만나면서 두려움은 믿음과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너무도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 여러 번의 질문에도 전혀 귀찮은 내색도 하지 않고 처음처럼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글로 남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알 리 미

한방무료진료 일시: 2월 15일 (수) 14시~16시 | 장소: 식사 2통 경로당